

		보 도 자 료		당신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발표일시	2008. 9. 5(금) / 총2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멘트와 함께	
담당 부서	기술팀, 기획팀	담당자	· 기술팀장 이기석, 기획팀 대리 한찬수 · ☎ (02)538-8230, 8235 E-Mail speedfire@cement.or.kr		

SBS 8시 뉴스 보도 『'악취에 벌레까지' 산업폐기물 관리 '구멍'』에 대한 시멘트업계 입장

지난 9월 3일(수) 서울방송(SBS) 8시 뉴스에서 방영된 『'악취에 벌레까지' 산업폐기물 관리 '구멍'』 기사(박수택 기자) 내용 중, 일본에서 수입한 산업폐기물이 시멘트산업에서 사용된다는 보도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멘트업계 및 양회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수입된 일본 폐기물이 국내 시멘트산업에서 최종 처리된다?

수입업자의 명백한 허위진술로서 사실이 아닙니다. 시멘트업계에서는 동 수입업자의 폐기물을 반입, 사용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위법 사항으로 이번에 적발된 폐기물 수입업체는 일본 Y사의 한국지사로서 문제가 된 폐기물(폐고무류)을 국내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한 후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 관련 절차를 위해 중간처리업체인 K사에게 제반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주로 보도블럭 제조회사에 고무분말을 공급하는 K사는 동 폐기물이 폐고무류 보다 오히려 폐합성수지, 천조각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재활용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 전량 수입을 거부하였으며 Y사가 요구한 서류 역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동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해진 Y사는 그동안 세관에 이를 방치하다가 최근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한편 부산세관이 중간처리업체인 K사에 확인한 결과에서도 K사는 동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였으며, 과거 수입한 폐기물 중 일부는 고무분말을 생산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보관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K사는 과거에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을 시멘트업체에 공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공급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일본 Y사 한국지사장 인터뷰 中 “중간처리업을 통해 시멘트산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에 대해

명백한 허위 진술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Y사가 중간처리를 위탁한 K사는 과거에는 물론 향후에도 시멘트업체에 폐기물을 공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조사기관인 부산세관 뿐만 아니라 취재기와 제보자에게도 K사 대표자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인 Y사의 장모 지사장은 동 폐기물이 “중간처리업을 통해 시멘트산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명백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진술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만을 선별, 사용 중인 시멘트업계는 기업윤리와 친환경산업을 지향해 온 그간의 성과가 크게 훼손당했으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업계와 양회협회는 금번 보도와 관련, 명백한 허위진술을 한 Y사 장모 지사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며 명확한 해명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